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8. 둘째 짐승

2014. 04. 2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묘하게 생긴 짐승에 대한 계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 안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11~14]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 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군요. 이 짐승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짐승이지요?

답: 예언의 표상으로 짐승은 일단 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도 어떤 국가이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람이 없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전쟁 없이 성립된 왕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하여 건국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없이 건국되는 어떤 나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지요.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타나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 대하여서는 12장에서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은 바다의 대립개념으로 상징된다는 것ですよ. 그러니까 유럽처럼 국가들과 인구와 언어들과 민족들이 붐비지 않는 조용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국가 간의 전쟁이 없고, 국가가 형성되지도 아니한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런 지역에 국가 간의 전쟁이 없이, 또 어린양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계시록에서 어린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를 타나냅니다. 그런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찾으면 누구든지 미국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당장 미국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 예언 상에 미국이 등장해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국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

건들을 예언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계시록 예언의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교권국가 즉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그 세력에게 쫓겨서 유럽에서 미주로 피난을 왔습니다. 12장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이 입으로 토해놓은 물을 삼켰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땅에 교권국의 방해 없이 복음을 실현하는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근거한 퓨리탄들이 복음정신을 중심으로 건국합니다. 당연히 예언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개신교회의 복음을 전해주시 않았습니까.

3.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가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용은 사단이잖아요? 미국이 사단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지요.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 같은데, 종교가 국권을 가지면 그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참 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나라는 교권과 정권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종교가 정권에 간섭하지 않고 국가가 교권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즉 정교분리 원칙 위에 건국되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라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짐승은 생김새가 어린양처럼 생겼는데 면류관이 없는 두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표상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네 마리 맹수가 표상으로 등장했는데, 다니엘 8장에는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단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한 것이라면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오는 짐승은 8장의 짐승의 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성경에서는 제사드릴 수 있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이 표상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와 헬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유대인들과 유대 나라에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나라도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용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계시해주신 것입니다.

4. 왜 그렇게 변질될까요? 어린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성경의 복음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인데 말입니다.

답: 그러게요. 11절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계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참 문제는 어린양 같다는데 있습니다. 어린양은 예수님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건국되었으니 보는 사람들이 이 국가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용처럼 말합니다. 그가 용처럼 말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린양 같으니까 여전히 어린양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짐승은 또 한 번 용의 변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교권국이 되게 한 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예수님의 탈을 쓰고 용의 일을 하도록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나

라가 처음부터 용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하지요. 처음부터 양의 털을 쓴 용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 7:15)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용을 대변하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지요. 땅에서 일어난 국가가 이 일을 할 것이며 특히 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조직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개신교국입니다. 기독교국가라고 하지요. 한 국가에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될 때 그 나라를 기독교국가라고 한답니다. 미국은 정말 기독교국가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구조와 국민들의 생활이 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경적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용의 사상을 의식하지 못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어린양 같이 나와서 용처럼 말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5. 말씀을 들으니 어린양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 것이 그리 믿음직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 두 뿔은 무엇입니까? 그냥 권세를 나타낸다고만 말하고 다니엘서 8장의 짐승의 변신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답: 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한대로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가지 권세를 분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나라는 두 가지 권세를 양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한대로 정치권과 종교권을 양립시키며 서로 불가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와 교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간파하였을 때 이것을 양립시키는 형태로 한 국가가 건국되었을 때 그 국가를 통하여 용이 자기 일을 성취하는 상태를 표상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 국가에 기독교가 종내에는 국권을 업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실 성경 예언에서 짐승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성경 자체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13:11절 이하를 읽으면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하여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19:에서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한 번 봅시다.

[계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말씀에 짐승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했거든요. 이 일을 한 장본인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 이리가 들어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어린양으로 상징된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국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땅으로 표상된 지역에서 예수 정신으로 건국되어서 정권과 교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정치를 하던 나라에서 기독교가 용의 사상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의 사상을 마치 예수의 사상처럼 받아

들이도록 할 것이라는 표상적 예언입니다. 13장 11절 이하를 읽으면 이 짐승의 행사가 국권을 가지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이지만 정권을 구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계13:15~17]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강력한 정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정치권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정치적 세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권세도 휘두르는 세력인데, 바다짐승은 그 자체가 교권국이 되었지만 땅 짐승은 교권국은 아니라도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지닌 나라인데, 핵심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즉 어린양 예수처럼 보이면서 용의 사상을 전파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6. 제가 속으로 성경에서 빨도 어떤 나라에서 나누어진 짐승보다는 좀 작은 국가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이 짐승의 빨은 국권과 교권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한 사실에서 이런 의구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국권을 업게 될 것을 상징하기에는 아주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답: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빨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보여주지만 그 두 권세가 나중에는 짐승이라는 한 개체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짐승은 구약성경에 분명한 계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 8장의 양과 염소의 변형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강가에서 나왔고 또 나오는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그냥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형태이지요. 전혀 드러난 일이 없던 한 세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계보를 찾지 못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 친(親) 복음적 모습이지요. 과연 양으로 상징된 페르시아나 염소로 상징된 헬라가 처음에는 친 이스라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염소로 표상된 헬라는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네 빨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는 것으로 표상했습니다.(단8:8~14, 21~24) 그들 중에서 한 작은 빨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런 친 복음적 모습이라는데 단 8장의 두 짐승의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져서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 거짓 선지자로서의 동일한 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으로 이것을 구약에 계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린양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런 짐승은 없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진리를 땅에 던진 그 뿔과 같은 성질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 자체가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한 뿔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뿔과 합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7. 참 묘한 상징적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속겠습니다. 어린양 예수님의 모습이며 사상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서 용, 곧 사단처럼 말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잘 속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는 용처럼 말한다고 하고 12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했는데 바다짐승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답: 그러면 12절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계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저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 교권국의 권세를 받아서 행사하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땅은 짐승이 올라온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교권국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교권국이 망하게 되었다가 회복된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상징된 나라가 언제 건국될 것인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핍박 기간이 지나면서 땅이 해를 입은 여자를 도와 용이 입으로 토한 물을 삼키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때 반 기간이 끝날 무렵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땅 속에 숨어있는 듯한 지역에서 국가 간의 전쟁 없이 한 나라가 예수의 정신으로 건국될 것을 잘 예언하였습니다. 세 때 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은 유럽에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나라들이 건국되는 것과는 달리 조용히 건국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해 주신대로 용이 토한 물을 삼키는 땅이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해주었고, 바로 그때 1776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유럽의 교권국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인데 세월이 지나면 이 해석이 맞았는지 잘못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만, 현재 이 나라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단일 교단의 교인 수로는 카톨릭이 가장 많지요. 6천만 이상이고요 상하원에도 단일 교단 교인 의원 수는 카톨릭이 가장 많습니다. 개신교로 가장 큰 남침례교 교인 수가 1천만 좀 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카톨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 일선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었는데, 적어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감히 꿈도 못 꾸곤 일이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8.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루만 대통령이 교황청에 대사를 보내려고 할 때 의회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월슨을 대사로 보낼 때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타임지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신성동맹(New Alliance)이라고 불렀습니다. 1951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시도했을 때에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1984년 그러니까 33년 후에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다짐승의 세력권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번 대선 때 공화당 후보

중에는 개신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롬니가 물문이었을 뿐이지요. 그 외에는 모두 카톨릭이었습니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개신교인었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지요. 그 중에릭 샌트롬 후보는 유세에서 미국의 정교분리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지금 9명의 대법관 중에 개신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개신교국이 아닙니다. 어린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고 바다짐승의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9. 그 말씀을 들으니 좀 으스스한데요, 그럼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나라가 유럽의 교권국과 같은 행사를 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까?(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눈에 이 나라의 장래가 그렇게 보였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네요.

답: 다니엘서에 예언된 역사적 사실들이 다 성취된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 되었으니까 계시록 예언도 확실히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해석이 바른 것인지 장담하기 쉽지 않을 뿐이지요. 이런 위험에 대하여 아브로 만하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물론 그는 이 사실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바티칸 내부 이야기를 쓰면서 끝에 미국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 훨씬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직역을 하면 “바티칸 살인자”인데 영어로 Murder In the Vatican입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책을 보니까 내용이 좀 긴데,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는지 좀 그러네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 310쪽에서 317쪽까지인데, 이 책은 1985년에 출판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314쪽 315쪽의 일부를 읽어보시지요.

[미국과 교황청 간의 비밀 협조체제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미 행정부의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독실한 가톨릭 신도로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가톨릭의 이해관계와 연대하여 생각해 왔고 또한 역으로 가톨릭의 이해관계를 미국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으며 이와 같은 밀월 관계는 8년간에 걸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절정에 달했다. 당시 카톨릭 신도 주요 공직자로는 국무장관 조지 슈츠, 백악관 비서실장 도날드 레건, 국가 안보 수석 보좌관 로버트 맥파레인, CIA국장 윌리엄 케이시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 서열 2위의 막강 4인방이었다. 미국과 교황청 정보기관의 비밀 합작은 결국 1984년 미국과 교황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법적인 결실을 보았다.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는 이내 미 행정부에 종교 및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워싱턴의 모든 외교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교관으로 등장했다. 이는 수사학적인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다. 미 전체 가톨릭 신도라는 거대한 집단이 교황청 대사의 사정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소속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에 관계없이 6천만에 달하는 거대 군단의 정치 및 도덕적인 입장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두 주요 정당은 로마 교황을 대표하는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의 동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주미 교황청 대사는 요주의 인물이다. 미국이 교황청의 국내외 정책에 반대라도 할 경우 그는 6천만이라는 거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미국에 대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 행정부와 교황청 사이의 우호적인 공조 관계가 지속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경우인데 교황청 대사는 이때 여차하면 엄청난 수의 충성스런 미국의 가톨릭 신도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는 교황청의 지시 하에 그들에게 어느 특정한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황청

과 대사를 교환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단일 교단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교황청은 앞으로 미국을 철저한 가톨릭 국가로 만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애청자들이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계시록 13장 12절 예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일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보원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신분예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총 317쪽 되는 책을 다 읽으면 정보국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10. 이 글을 읽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국가로 변신해가고 있다고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양처럼 일어난 것이 더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어난 국가가 용처럼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용의 소리로 듣지 않고 어린양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잘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예언의 지도를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의를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믿음을 파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요13:19입니다.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언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애청자들께서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따라 올바르게 예수 믿음을 지키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